

나주 피겨 소녀 박소연 '포스트 김연아' 꿈꾼다

나주초 6학년 때 국가대표 선발 ... 2010년 광주일보 뉴파워 58인 선정

김연아 세계선수권 금메달로 소치 티켓 3장 확보 ... 올림픽 출전 기회

김연아가 지난 17일(한국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2013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포스트(Post)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 유망주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연아가 4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름에 따라 국내 피겨계는 2014 소치 올림픽 여자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할 '티켓 3장'을 선물로 받았다. 국제 빙상연맹(ISU)은 올림픽 직전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선수가 1~2위에 오르거나 소속국이 세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준다 현재 김연아와 함께 소치 올림픽에 출전할 국내 유망주로

는 16살 동갑내기 나주출신 박소연(신목고)과 김해진(과천고)이 뽑혔다.

박소연은 나주초등학교 6년이던 13살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초등학교 시절인 2009년 한태평양 국제 동계체전 노비스(13세 이하) 1위, 전국 남녀 랭킹대회 주니어 1위, 중별 전체 2위 등 뛰어난 솜씨를 선보였다.

이와 같은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2010년 4월에는 중학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일보가 선정하는 광주·전남을 이끄는 '뉴파워 58인'에 당당히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소연은 서울로 진학한 후에도 지난해 1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제1회 동계 유스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4위를, 지난해 9월 타카에서 열린 ISU 주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등 일취월장하는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 국내 피겨 주니어 무대를 휩쓴 김해진 역시 지난해 9월 슬로베니아 블레드에서 열린 ISU 주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 싱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최고 유망주로 떠올랐다. 박소연과 김해진은 20일 현재 ISU(국제 빙상경기연맹) 여자 싱글 세계랭킹에서 63위(랭킹 포인트 860점)와 51위(1095점)에 각각 올라있다.

하지만 ISU 랭킹 100위내에 드는 선수들이 일본은 13명인 반면 한국은 김연아·곽민정(79위·이화여대)을 포함해 4명으로 선수층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피겨스케이팅 선수층과 운동여건은 열

약한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 피겨 스케이팅 등록선수 중의 경우 광주는 최지은(비아중 2)·백세빈(윤리중 1)·전정은(염주초 5)·최준희(남·용봉중 2) 등 4명, 전남은 박해영(순천대 1)·김유진(나주중 1) 등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어려운 운동환경 속에서도 광주 영주동 빙상장에서 정영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미래의 김연아'를 꿈꾸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최지은은 지난해 출전한 동계 체전 싱글D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이어 올해 동계체전 싱글C조에서 7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전남도 빙상연맹 박종화 전무는 "피겨는 개인레슨을 받고 빙상장을 빌려야 해 지출 부담이 많은데다 지방에선 좋은 지도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며 "잠재력을 가진 광주·전남 피겨 유망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 체육회와 시·도 교육청에서 훈련비 일부라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 빙상경기연맹은 11월 국내 랭킹대회 겸 소치 동계올림픽 파견 선수선발전을 치를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김연아와 함께 소치 올림픽에 출전할 국내 유망주로 손꼽히는 나주출신 박소연(신목고). 지난해 9월 타카에서 열린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4차 대회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따내는 등 뛰어난 실력으로 현재 ISU 랭킹 63위에 올라 있다.

〈일간스포츠 제공〉

박소연

- ▲1997년 출생
- ▲나주초등학교-강일중학교-신목고등학교 재학 중
- ▲2006년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 여자 싱글1급 1위
- ▲2008년 동계체전 피겨 여자초등부 프리 스케이팅·쇼트부문 1위
- ▲2009년 제1회 한태평양국 초청 동계대회 노비스 부문 우승
- ▲2010년 전국 피겨 스케이팅 랭킹대회 여자 싱글 우승
- ▲2011년 아시안트로피 여자 싱글 주니어 부문 2위
- ▲2012년 국제빙상경기연맹 주니어 그랑프리 4차대회 여자 싱글 은메달
- ▲2013년 제94회 동계체전 피겨스케이팅 여자중학부 금메달

KIA, 뒷심부족...NC에 2-4 역전패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가 20일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타선의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2-4 역전패를 기록했다.

'테이블 세터' 이용규-김주찬과 '키스톤 콤비' 김선빈-안치홍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라인업에서 제외된 시범 타선이 가동됐다.

NC 선발로 등판한 외국인 투수 아담의 끝없는 피칭에 KIA는 4회까지 하나의 안타를 뽑아내는데 그쳤다.

5회초 1사에서 나온 이준호의 안타를 시작으로 이성우와 고영우가 나란히 볼넷을 끌라내면서 베이스를 가득 채웠다.

신종길이 2구째를 공략해 좌중간을 가르며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하지

만 이어진 1사 1·2루의 찬스에서 홍재호와 나지안이 플라ירו로 몰려나면서 추가득점에 실패했다. 이어진 말 수비에서 선발 박경태가 노진혁과 김태군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무사 2·3루의 위기에 몰렸다. 김중호의 몸에 맞는 볼로 무사 만루, 차화준의 2루 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았다. 이어진 박상혁의 투수 앞 땅볼 때 박경태가 2루 송구를 선택했지만 더블 플레이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2-2 동점이 됐다.

7회 동승고 출신의 NC 기대주 노진혁이 우익수 카를 넘기는 2루타로 출루한 뒤 김태군의 희생 번트와 김중호의 1루수 앞 땅볼로 홈을 밟는데 성공했다. 2-3으로 뒤진 8회에는 아쉬운 수비가 추가 실점의 발미를 제공했다.

NC 3번 박상혁의 타구가 좌익수 최훈락의 뒤로 빠지면서 2루타가 됐고, 이준호의



KIA 신종길이 20일 NC와의 시범경기 5회초 1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우전안타에 이어 대타 조영훈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점수는 2-4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야구장 입장요금 지정석 1만3000원·내야 8000원·외야 7000원

2013시즌 무등야구장 입장요금이 동결됐다. KIA 타이거즈는 오는 30일부터 개막하는 2013시즌 무등야구장 입장요금을 확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지정석은 1만3000원(중·고 1만원, 어린이 7000원), 1·3루 8000원(중·고 5000원, 어린이3000원), 외야 7000원(중·고 4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요금이 1000원씩 오른다.

올 시즌 응원지정석이 별도 운영된다. 응원지정석은 내야 1루 304, 305, 206, 207 블럭 등 총 777석으로 주중

9000원(초·중·고 5000원), 주말 1만원이다. 멤버십 회원과 T클럽 회원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다.

카드사 제휴 할인도 적용된다. 현대카드의 일반석 50% 할인(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인 경우), 광주VISA와 삼성, 신한, 롯데카드의 각각 일반석에 한해 1000원을 할인해 준다.

9개 프로야구단 어린이 회원과 유니폼을 착용한 호남지역 초·중·고 야구부원은 매진시를 제외하고 외야석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증명서 소지자) 및 1~3급 장애인(장애인증 소지자)도 매진시를 제외하고 외야석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예매는 인터넷 티켓링크(<http://sports.ticketlink.co.kr>), 전화(1588-7890), CU(구 훼미리마트) 및 GS25 내의 ATM, 한네트 ATM, 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30일 열리는 KIA와 넥센의 시즌 개막전 티켓 예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31일 경기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막강 도미니카 WBC 전승으로 우승

결승서 푸에르토리코 3-0 제압

도미니카공화국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사상 첫 전승 우승의 위업을 이루고 세계 야구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푸에르토리코와

의 2013 WBC 결승에서 1회 터진 에드윈 엔카르나시온(토론토)의 2타점 2루타와 상대 타선을 3안타로 틀어막은 철벽 마운드를 앞세워 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도미니카공화국은 2006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게다가 대회 1라운드부터 결승까지 8경기 모두 이겨 사상 첫 전승 우승이라는 새 역사까지 썼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라운드부터 1위

로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우승까지 차지, 우승상금 1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40만달러(약 38억원)의 부수입도 챙겼다. 대회 총상금은 1400만 달러(약 156억원)다.

2006·2009년 대회에서 모두 2라운드(8강)에 머물 푸에르토리코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 4강에 진출, 3회 연속 우승을 노린 일본까지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지만 정상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연합뉴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 여행비 68,000원
-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 불포함 식사비
-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 여행비 37,000원
-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항산공원
-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 불포함 식사비